

포천시의회 **이강림** 의장

본회 포천검정회에서 검정을 받고 있는 이강림 회원이 포천시의회 의장에 취임함에 따라 포천시홀스테인검정연합회 임원진과 동행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경력

이강림 의장은 1980년부터 포천군청 기획예산과를 거쳐 식산과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서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1987년 송아지 3두를 가지고 낙농업을 처음 시작했다.

그 후 1990년 경기도 선도농가(낙농부분) 선정, 1996년 포천시 빙그레낙우회장, 농업경인인회 사무국장, 축산발전연대 초대사무국장, 포천축협 대의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

하였고, 1996년 11월 20일 포천검정회 발기위원으로 검정회가 발족하는데 기여하였다.

시정방향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이강림 의장은 포천시 축산규모는 양계는 전국 1위, 양돈 5위, 낙농은 4~5위등으로 전국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산업규모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무의미한 지원보다 축산인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정책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년의 의장임기 동안 눈으로 보이는 실효보다 산업전체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낙농산업은 충분히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농가 스스로 산유능력검정회, 축산발전연대 등을 조직하여 젓소개량사업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에 순응하여 HACCP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의욕과 의식이 깨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장에게 바란다.

▶ 김익동 회장 (포천시 홀스타인검정연합회장)



지역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포천 낙농이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서 최우수를 차지하고, 포천시 홀스타인품평회를

2004년부터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낙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컸지만 이강림 의장을 중심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개량사업을 위한 지원과 축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실내품평회장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

▶ 최명희 수석부회장 (노곡목장, 서울우유검정연합회장)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우수한 젖소를 만들 수 있고, 수익성 높은 목장을 운영할 수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

원장과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변함 없이 자기수

정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젖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신뢰와 함께 한국낙농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낙농을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포천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

▶ 양신철 팀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심사팀장)

20년 전에 포천시 최초로 텐덤 착유시설을 도입하는 등 낙농기계를 선도하여 온 걸로 알고 있다. 목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로봇착유시설의 도입과 지속적인 개량으로 한국낙농을 이끌어주시기 바란다. 더불어 포천군 부군수를 역임하신 부친과 같이 시민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을 펼쳐주시고, 포천시 축산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리더자의 역할과 초선과 같은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



▶ 조성달 부회장 (포천검정회장, 유밀원목장)

포천시 한국농업경영인회, 포천검정회, 낙우회, 새마을협의회 등의 활동



을 하면서 농업과 시민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의 소리와 농민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송중석 이사(포천검정회 부회장, 큰별목장)



〈송중석이사, 김기태국장

1996년 전국 최초로 포천검정회가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규모와 시설, 능력이 떨어지는 목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검정사업에 참여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그 때 이강림 의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참여를 결정하였다.

검정에 참여하면서 개량과 체계적인 사양관

리 결과 사육두수가 96년 30두에서 2006년 140두로 증가하였고, 305일 검정성적도 96년 7,000kg에서 2005년에는 11,526kg으로 향상되었다고 한다.

더욱 노력할 터

부족한 본인이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는 주위 농가들의 지원과 성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노력할 생각이며, 정책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농업인과 포천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홀스타인검정연합회의 역할도 증자 개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다지는 역할에서 벗어나 경매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판매사업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업은 실내품평회장이 설립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